

광동건학70주년서화전을 축하하며...

치 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학교법인 광동학원의 건학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서화전 개최의 향기로운 마음을 함께 합니다. 1946년 설립한 광동학원은 민족의 큰 스승이시며 참다운 수행자였던 운허 대종사의 지혜로운 덕화 아래 봉선사 사부대중의 민족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조국에 대한 사랑이 만든 자랑스러운 종립학교입니다.

이러한 선대(先代)의 공덕으로 수많은 인재가 배출되어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이끄는 동량이 되었으며, 전쟁과 분단의 아픔과 같이 시대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라와 지역을 지키겠다는 호국의 마음이 모범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같은 수승(殊勝)한 역사는 학교만의 긍지가 아니라 종단의 자랑이자 불교계의 영광이라 할 것입니다.

운허스님의 가르침과 보살행은 조실 월운 큰스님과 원로회의 의장 밀운 대종사께 상승(相承)하고, 이사장 일면스님을 위시한 봉선사의 사부대중에게 고스란히 계승되었기에, 광동학원이 지역의 명문학교로 우뚝 서고 교계와 지역사회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70주년을 맞이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지난 70년 동안 배출한 수 만명의 동문들의 기여로 우리 사회가 한층 발전하고 시민들의 삶이 나아졌으니, 선대께서 가지셨던 미래의 혜안(慧眼)과 인재양성에 대한 원력에 종도(宗徒)의 공경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아가 선대의 혜안에 보답하겠다는 마음가짐과 그 실천으로 정진하는 후학의 자세는 곧 광동학원의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라 할 것입니다.

광동학원이 지난날의 영광과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 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선도하는 인재가 넘쳐나기를 바라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여 이웃을 내 몸처럼 돌보고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만드는 보현보살행의 선재(善財)를 길러내는 진정한 종립학교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불어 건학 70주년을 맞이하여 귀한 작품을 선뜻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서화전과 강연회 등 뜻 깊은 기념사업이 여법하게 진행되고 보람 있게 회향하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정성들이 모여 학교발전을 이루고 그간의 학교가 기여해 왔듯이 이웃과 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기원합니다.

종단을 넘어 사회 곳곳에서 유익한 불사로 진력하시는 이사장 일면스님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학교 관계자와 동문님, 그리고 학부모님의 노고에 치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선배들의 공적을 마음에 새기며 정진하는 모든 학생들이 뜻하는 대로 성취하기를 축원하며, 광동의 발전이 우리 사회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